

“청년·지역주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상생의 발판 마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사·지역주민대표 국외 공동연수’
일본 오사카 폐기물처리장 등 방문
지난달 학생골프선수권대회 개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청년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사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반영을 통해,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9~22일 나흘간 지역주민대표들과 함께 ‘공사-지역주민대표 상생·소통·협력 국외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공사 주민대표 운영위원과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등 수도권매립지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최초 지하화 환경기초 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를 견학한 데 이어, 올해는 일본 현지의 선진 폐기물



공사는 수도권 2,600만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송병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영상을 통해 ‘폐기물의 위생적 매립 및 자원화’ 등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영상 속 건물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공사 본사. /공사 유튜브 계정 갈무리

처리시설 견학과파크골프장 설치·운영을 벤치마킹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고베 미나토지마 소각장 등의 일본 내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았다. 운영 현황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사례를 살펴보고, 츠루미료쿠치 등의 파크골프장도 방문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송병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주민 혜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 씨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에 우리 주민대표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적극 소통’ 통한 노사화합·창의적 업무



일본 오사카 시내의 인공섬 ‘마이시마 소각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앞서 지난해 12월30일 공사는 ‘노사 합동 2030 청년소통단’을 발족했다.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모임이다. 청년소통단은 노사 공동으로 20~30대 직원 중 단장, 추진점검단을 꾸려 팀 단위(업무부서팀, 청년소통팀, 소통관리팀)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정기 및 분과 회의 등을 개최해 ▲노사협의회 미결안건 논의 ▲신규안전 발굴 ▲젊은 세대의 의견을 모아 기관장·노동조합과 직접 소

통 등을 추진한다. 공사내 전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소통단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제언 등을 검토해 우수 제안자, 우수 소통참여단원을 선발·포상도 할 계획이다.

소통단발대식 행사에서 송병역 공사 사장은 “청년소통단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젊은 세대의 생각과 의견을 토대로 경영 쇄신과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이성호 위원장은 “청년소통단은 노사 화합과 소통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공사 발전과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지난달 27~28일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CC에서 ‘제2회 드림파크C C 사장배 학생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 스포츠 꿈나무 양성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회는 지역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내년도 국가대표 선발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특전과 함께 제 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인천광역시 대표 선발전도 겸한다. 또 참가 학생 선수 전원의 참가비용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부담하고, 입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총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전, 12조 풀어 민생 살린다... 소상공인·중소 지원 확대

전년대비 2조2000억 증가 상반기에 57% 투자비 집행

한국전력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의 투자비를 집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9.7조원) 대비 2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에만 6조7000억원(57%)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는 목표액 2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초과한 3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일부터 한전 본사(2000여명 근무) 구내식당을 주 2회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뉴시스

(수·금 석식) 휴무해 임직원의 외부식당 이용을 촉진,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

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등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제품을 품목별 총구매 물량의 20% 내에서 우선 구매하고, 임직원 급여 및 사회공헌 활동 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지난 2024년 11월부터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에너지효율 1등급 고효율기기 구매 시 비용의 40%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한전과 계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금 대출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에너지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자금 지원도 지난해 128개사

에서 올해 157개사로 확대한다.

한전은 이외에도 2014년 본사 이전 후 나주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 농번기 일손 돕기, 지역 특산물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러브펀드’와 ‘매칭그랜트’를 활용해 전국 250여개 사업장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기여하며, 공기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빵 신메뉴 선택

‘베이커리 페어’서 출범식

각 지역 베이커리에서 가루쌀 빵 신제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방문객에게 성심당 ‘딸기시루’를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시식행사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베이커리 페어에서 ‘2025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 출범식’을 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가루쌀 빵을 소개하고 지역 베이커리 100여 곳이 참여한다.

정부는 쌀 과잉을 낮추고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해 도입된 가루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베이커리가 가루쌀을 원료로 한 빵류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베이커리 30곳에서 120종의 가루쌀 빵과 과자를 개발했다. 또 대한제과협회와 협력해 참여업체 대상 신메뉴 개발에 필요한 원료 공급, 가공적성 교육, 품평회 개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개발된 가루쌀 빵은 우리 주변 베이커리에서 판매되고 있다. 성심당(대전)은 과일시루 등 3종, 푸레주르(전국)는 기본종은 쌀베이글 등 8종, 그린하우스(경남 창원)는 쌀식빵 등 38종, 독일베이커리(충남 당진)는 찰쌀과 배기 등 22종, 그라츠과자점(서울)은 샌드위치 등 23종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출범식과 함께 개최되는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에서는 성심당, 푸레주르, 그린하우스, 독일베이커리, 그라츠과자점 등 우수업체 20여개소의 가루쌀 제품 전시와 소비자 시식 행사도 진행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월급 3개월 안주면 상습체불사업주”

고용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올해 10월부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상습체불사업주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

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3개월분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 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체불횟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가 받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월평균 금액을 산정해 나온 3개월치를 미지급하고, 피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돼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제재를 받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소·중견기업 원전 수출 맞춤 지원

산업부,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2일~16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첫걸음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 30여개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전수출 집중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3년 13개 기업이 참여해 수출계약 등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2기를 확대·개편한다.

우선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에는 최대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수출

유망성이 높은 8개국과 20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 수출 지원 사업 패키지를 30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글로벌 컨설팅사를 통한 중장기 수출 로드맵 수립, 해외 공급망 분석 기반 바이어 발굴·매칭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 퇴직전문가를 활용해 선정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공기기업과의 동반진출 뿐만 아니라 독자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